

신라 5小京의 성립과 國原小京*

譯 최경선**

- I. 머리말
- II. 5小京의 설치
- III. 신라의 國原 領有
- IV. 國原小京의 설치와 그 기능
- V. 國原과 于勒
- VI. 國原小京 설치 목적
- VII. 5小京 성립의 배경과 의의

I. 머리말

신라는 당과 연합하여 백제·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다음으로 당 세력을 한반도로부터 쫓아내어 통일을 달성함으로써 획득한 광대한 영역에 대한 새로운 통치정책을 펼쳤다. 전국을 9개의 州로 나누고, 그 안에 郡·縣을 설치하였으니 이른바 州郡縣制이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5개의 小京도 설치하였다.

이 5소경은 왕경 금성(경주)가 신라 국토 전체에서 동남쪽에 편재되

* 이 글은 田中俊明, 1997 「新羅五小京の成立と國原小京」, 『古代の日本と渡來の文化』(上田正昭 編), 學生社를 번역한 것이다.

**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이해되었다.¹⁾ 확실히 그러한 측면은 부정할 수 없는데, 그 경우에 5소경은 왕경과 별도로 그 자체로 완결된 구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왕경을 별개로 한, 東西南北中の 5소경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 중심이 되는 것이 중원소경이며, 원래는 중원소경으로 불렸었다. 여기에서는 국원소경의 성립 배경과 성격을 검토하고 국원소경을 중심으로 한 5소경이 완비되기까지의 과정과 그러한 5소경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 私見을 서술해 보고자 한다.

II. 5小京의 설치

『三國史記』新羅本紀에 의하면 신라가 통일을 달성한 문무왕대부터 신문왕대에 걸쳐서 소경 설치 기사가 다음과 같이 보인다.

[문무왕 18년(678)] 北原小京을 설치하고 大阿滄 吳起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문무왕 20년(680)] 加耶郡에 金官小京을 설치하였다.

[신문왕 5년(685)] 3월, 西原小京을 설치하고 阿滄 元泰를 仕臣으로 삼았다. 南原小京을 설치하고 여러 州郡의 民戶를 옮겨 나누어 살게 나누어 살게 하였다.

또 이와 관련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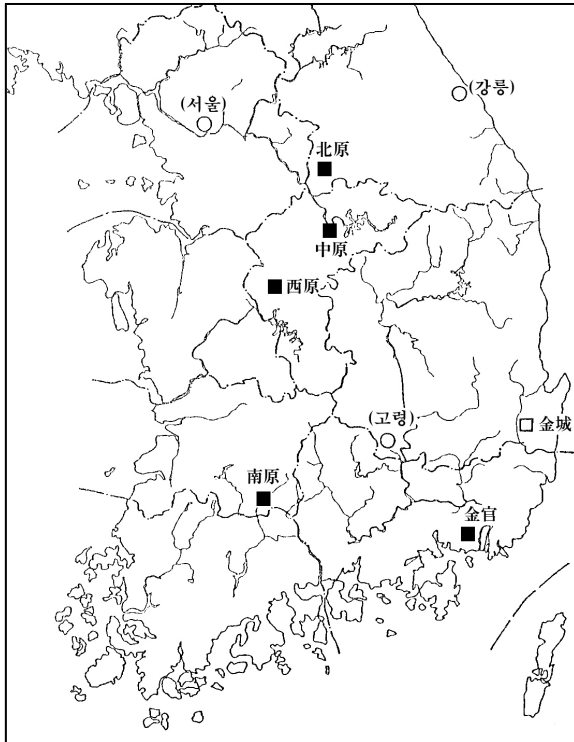
[신문왕 9년(689)] 西原京城을 쌓았다.

1) 藤田亮策, 1963, 「新羅九州五京攷」, 『朝鮮學論考』, 藤田先生記念事業會, 357쪽. 이 논문은 신라의 5소경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논문으로 소경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해서 선구적으로 다각적으로 논하였다. 시사적이나, 내용이 나열적이며 체계성이 부족하다.

[신문왕 11년(691)] 南原城을 쌓았다.

라는 기사도 있다.

이에 의하면 678년부터 685년에 걸쳐서 북원소경(원주)·금관소경(김해)·서원소경(청주)·남원소경(남원)이라는 4개 소경에,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국원소경(충주)를 합쳐서 5소경이라는 것이며, 이렇게 하여 5소경이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그림 1> 참조).



□ 왕경 ■ 소경 ○ 관련 지명(현재 지명)

<그림 1> 신라 5소경 위치도

5소경 중에서는 금관소경만이 ‘原’자가 없어, 특이한 감이 있다. 『三國史記』地理志의 연혁기사에서는 金海小京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옛

金官國. 시조 수로왕으로부터 10대의 구해왕에 이르렀으며, 양나라 大通 4년 신라 법흥왕 19년(532) 백성을 거느리고 내항하였다. 그 땅을 金官郡으로 삼았다. 문무왕 20년 永隆 원년(680) 소경으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일단 금관군으로 하였다가 그것을 김해소경으로 하였다는 것으로 加耶郡을 금관소경으로 하였다는 앞의 신라본기 기사와는 차이가 있는데, 680년에 소경으로 하였다는 점은 일치하며, 본고에서의 관심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다만 금관소경이든, 김해소경이든 다른 소경과는 이질적인 느낌이 드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남원의 실상사에 있는 『秀澈和尚楞伽寶月塔碑』(893)에는 수철이 ‘東原京의 福泉寺에 이르러, 具足戒를 潤法 大德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²⁾ 여기에서 ‘동원경’이 보이는 것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강릉을 고려 태조 19년(936)에 ‘동원경으로 불렀다.’라고 한다.³⁾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강릉은 신라 통일 이전에 대략 20년 동안 복원경이 되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통일 이후에는 명주가 되었으며, 신라시대의 동원경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수철은 앞선 비문에 따르면, 신라 왕경 진골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수계를 받은 후, 지리산 知實寺(실상사)에 들어갔다가,⁴⁾ 그 후 왕명에 따라 양주(양산)의 深源寺에 주석하였다. 그곳에서 타계하였는데, 실상사와의 관계로 실상사에 비가 세워진 것이다. 신라 왕경·양주·실상사와 같이 그의 활동범위는 주로 남부지방이었으며, 수계도 남부지방에서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리가 없겠다. 김해라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또한 김해가 ‘동원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외 다른 곳에

2) 朝鮮總督府 編, 1919, 『朝鮮金石總覽 上』, 朝鮮總督府, 57쪽.

3) 『新增東國輿地勝覽』卷44 江原道 江陵大都護府 建置沿革條. 『世宗實錄地理志』나 『高麗史』 지리지에도 보이나 『高麗史』 世家나 『高麗史節要』에는 보이지 않는다.

4) 『智異山實相寺重興事蹟詩(또는 誌) 序』(權相老 編著, 1994, 『韓國寺刹事典(上)』, 退耕堂權相老博士全書刊行委員會, 實相寺 項目에 인용)에 知實寺라는 이름이 보인다.

서 ‘동원경’을 찾을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러면 6소경이 되고 만다. ‘동원경’은 금관소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⁵⁾

이처럼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에 새롭게 설치된 4소경은 동서남북이라는 4개의 방위를 관칭한 것이었다.

한편, 국원소경은 역시 지리지에 경덕왕대에 중원경으로 개칭되었음이 전해지는데, 동시기에 동서남북이 갖춰졌음을 고려한다면, 국원소경이 중원소경으로 개칭된 것은 마찬가지로 문무왕대 말년부터 신문왕대에 걸친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문대왕 때에 이르러 세상을 떠났다’는 強首에 대해서, ‘中原京 沙梁人이다.’(『三國史記』 卷46 強首傳)라고 한 것은 후대에 추기된 것일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신문왕대까지 중원경이라는 호칭이 존재하였던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 둔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원소경을 고친 중원소경을 바로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사방에 東原·西原·南原·北原 등 4소경이 설치된 셈이며, 새삼스럽게 중원소경이 지닌 의의가 밝혀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국원소경이 중심적인 존재가 되었던 것일까? 이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 우선은 국원소경의 성립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Ⅲ. 신라의 國原 領有

국원 지역은 신라가 그 땅을 영유하기 전까지는 고구려의 영토였다.

5) 일찍이 지리산 단속사에 있었던 「海東故神行禪師之碑」(813)에는 ‘東京 御里의 사람’이라는 구절이 보인다(朝鮮總督府 編, 1919, 『朝鮮金石總覽 上』, 114쪽). 藤田亮策은 金海小京을 본래 동경으로 불렀다고 보았다(藤田亮策, 1963, 앞의 책, 354쪽). 그러나 이 경우는 찬자 金獻貞이 ‘皇唐’을 관칭하여 自署하고, 비의 제목에도 ‘海東’을 붙이고 있음을 고려하면, ‘皇唐’의 수도인 長安에 상대하여 해동 신라의 왕경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하는 편이 좋을 듯하다.

고구려의 영토가 된 시기는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나 광개토왕대로 보는 최근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⁶⁾ 즉 4세기 말이며, 그 후 5세기에는 고구려군이 소백산맥을 넘어서 신라 영토 내에 주둔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사료가 잘 알려져 있다.⁷⁾

그에 비해 신라가 경상북도 거의 전역을 영유한 것은 6세기 초까지의 상황이며, 더 나아가 소백산맥을 죽령으로 넘어서 단양에 진입한 시기는 540년대 후반이었다.

단양에 진입한 신라 세력은 그 후의 진출 활동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宣傳 비문을 세웠다. 그것이 「丹陽赤城碑」이며, 직접적으로는 이 지역에 신라가 진출할 때에 이 지역의 也爾次 등이 신라 측에 호응하여 일정한 功績이 있음을 고시하고 그것을 보상하는 내용인데, 그 의도하는 바는 신라의 은혜 넘치는 시책을 주지시키는 데 있었다.⁸⁾

신라는 이곳에서 나아가 552년에 서울까지 도달하였다. 『三國史記』 진흥왕 12년(551)조에는

왕이 居柒夫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를 침략하게 하고, 승세를 타서 10郡을 취하였다.

라고 하며, 『三國史記』 卷44 居柒夫傳에는

(진흥대왕) 12년 辛未(551) 왕이 居柒夫와 仇珍 大角浪, 比台 角浪, 耽知 迺浪, 奴夫 波珍浪, 西力夫 波珍浪, 比次夫 大阿浪, 夫珍 阿浪 등 여덟 장군에게 명하여 백제와 함께 고구려를 침공하게 하였다. 백제인이 먼저 공격하여 平壤을 깨뜨렸다. 거칠부 등은 승세를 타고 竹嶺 이외 高峴 이내의 10군을 취하였다.

6) 李道學, 1988, 「永樂6年 廣開土王之 南征과 國原城」, 『孫寶基博士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知識産業社.

7) 末松保和, 1954a, 「新羅建國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44~145쪽.

8) 武田幸男, 1979, 「眞興王代における新羅の赤城經營」, 『朝鮮學報』 93.

라고 하였다. 이처럼 신라는 죽령을 넘은 후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 영토를 빼앗았다. ‘평양’은 현재의 서울 중심부를 가리킨다. 신라와 백제는 후술하는 것처럼 541년에 백제가 먼저 제안하여 동맹을 맺었으며, 그로써 바로 강력한 고구려에 공동으로 대항하려고 하였다.

이와 대응하는 기사가 『日本書紀』에도 보인다. 卷19 欽明 12년(551) 是歲조에

백제의 聖明王은 친히 무리와 두 나라의 병사【두 나라는 신라·任那를 이른다.】를 거느리고 가서 고구려를 공격하고 漢城의 땅을 획득하였다. 또 군대를 진군시켜 平壤을 토벌하였다. 무릇 6郡의 땅으로, 마침내 故地를 회복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 대로이다. ‘한성’은 이전에 백제의 왕도였던 곳, 서울의 강남을 가리킨다. ‘임나’는 이 경우, 잔존한 가야 여러 나라에서 파견된 병사로 생각된다.

한성과 평양을 탈취한 직접적인 주체가 백제·가야연합군만이었던 것인지, 신라군도 포함되었던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는데 『日本書紀』 欽明 13년(552) 是歲조에는,

백제는 한성과 평양을 포기하였다. 신라는 이에 한성에 入居하였다. 지금의 신라의 牛頭方·尼彌方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 바로 이듬해에 백제가 탈취한 땅을 방기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三國史記』에서는 진흥왕 14년(553) 가을 7월조에

백제의 동북 변경을 취하여 新興(州)를 설치하였다. 阿漚武力을 군주로 삼았다.

라고 하였다. 이것은 신주 설치 연대와 관련하여 기록된 것인데, 신라가 ‘백제의 동북 변경’을 백제로부터 빼앗았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며, 『日本書紀』의 기사와 대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성, 평양 지역은 일단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빼앗아 회복한 상황이었는데, 신라는 그 후 곧바로 그때까지 연합하였던 백제를 몰아내고 이 지역을 자력으로 점령한 것이었다. 백제·신라동맹은 이 때에 이르러 결렬된 것이며, 백제는 신라와 대결하게 되었다. 이것이 554년 관산성(函山城) 전투이다. 이 전쟁은 신라의 승리로 끝나며, 백제의 聖王은 전사하였다. 그 결과 신라의 가야 병합이 가속되었다.

이처럼 신라는 540년대 후반에 소백산맥을 넘어서 고구려 영내에 들어가 바로 「적성비」를 세운 후, 그 기세 그대로 552년에는 서울까지 획득하였다. 신라는 이렇게 하여 6세기 후반에 일거에 백제를 뛰어넘고 고구려와 직접 대립하는 거대한 세력이 되었던 것이다.

신라의 국원 영유는 이처럼 545년 이후 551년 사이의 일로 생각된다.

IV. 國原小京의 설치와 그 기능

그러나 신라가 국원을 소경으로 한 것은 국원을 획득한 시점이 아니라 수년을 경과한 진흥왕 18년(557)이었다. 『三國史記』에는 진흥왕 18년조에

국원을 소경으로 삼았다.

라고 하며, 다음해 봄 2월조에는

貴戚 자제와 6부의 豪民을 옮겨서 국원을 채우게 하였다.

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小京化의 배경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하는데 그에 앞서서 이 국원소경과 왕경이 어떠한 관계에 있었던 것인지, 국원소경의 신라국가에서의 위상에 대해서 고찰해 두고 싶다.

소경은 그 호칭에서 보자면, 당연히 왕경의, 지방에서의 재현을 의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강수는 ‘中原京 沙梁人’이었는데, 이것은 즉 중원경에 ‘沙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랑이란 신라 왕경의 6部 중 하나이며, 이것이 중원경에도 있었던 것이다. 시대는 내려가는데, 서원소경의 故地인 청주의 상당산성에서도 남문 바깥에서 조선시대의 ‘喙部’銘의 평기ова가 출토되었으며, 옛날 喙部(梁部)가 존재하였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⁹⁾

그런데 『三國史記』職官志 下 外官 外位條에는

外位. 文武王十四年以六徒眞骨出居於五京九州別稱官名. 其位視京位. 嶽干視一吉滄. 述干視沙滄. 高干視級滄……

이라는 주지의 기사가 있다.¹⁰⁾ 뒷부분은 ‘그 지위는 京位에 준한다. (외위 제1위) 嶽干은 (경위 제7위) 一吉滄에 준한다. (외위 제2위) 述干은 (경위 제8위) 사찬에 준한다. (외위 제3위) 高干은 (경위 제9위) 급찬에 준한다. ……」라고 읽히며, 경위와 외위의 대응관등 대조표라고 할 수 있다. 『三國史記』에 외위에 관한 체계적인 기술은 이 기사뿐이며, 그 때문에 이를 통하여 문무왕 14년(674)에 외위가 창설된 것처럼 보이지만, 6세기부터 이미 외위가 존재하였음은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기사이다.

‘六徒眞骨’은 ‘六部眞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무왕 14년에

9) 忠北大學校博物館 編, 1982, 『上黨山城地表調査報告書』, 60~63쪽.

10) 기사의 글자 중에 ‘於’에 대해서는 ‘然’으로 읽는 의견도 있다. 본래 ‘於’로 되어 있던 것을 판각할 때에 刻工이 잘못 알고 새긴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권3 눌지마립간 즉위년조의 ‘怨奈勿質已於外國’의 ‘於’ 자가 해당 글자와 자형이 비슷하다.

는 '5京9州'는 갖춰져 있지 않았다. 5경의 경우, 국원소경이 존재하고 있었을 뿐이며, 9주는 통일기 이른바 9주로서 완비된 것은 신문왕 7년(687)의 일이었다.¹¹⁾

이 난해한 기사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외위에 관한 연구성과에 의하면,¹²⁾ 이 기사는 이때까지 외위를 칭하여 왔던 지방인이 이때부터 그에 대응하는 경위를 칭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대조표를 제시한 것이고, 이때에 외위가 소멸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에 따른 해석으로서, '왕경 6부의 진골을 왕경 밖의 소경, 주 등의 읍에 (장관으로서) 出居를 시켰는데, (지방의 읍인은 경위를 지닌 진골인 지방관과는) 별개로 관명(=외위)를 칭하였다. (이때 외위를 경위로 통일하였다.) 그 외위와 경위의 相當位는, 외위의 약간은 경위의 일길찬에 해당한다. 운운.'이라는 해석도 제시되었다.¹³⁾

그러나 이 기사의 전반은 '문무왕 14년 6도의 진골이 5경 9주에 출거하였으므로 별개로 관명을 칭하게 하였다.'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도 6부의 진골 신분인 자로 왕경에서 지방의 여러 읍에 출거한 자는 별개로 관명을 칭하게 하였다고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다.

문무왕 14년이라는 해는 출거시킨 해가 아니라,¹⁴⁾ 별개의 관명을 칭하게 한 해로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별개의 관명이란 당연히 외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칭하였던 것은 이때와 대조되는 경위였던 것이 된다.

지방으로의 출거에 지방관으로서의 파견이 포함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은 출거의 예가 바로 '귀척인 자제와 6부의 자제를 옮겨

11) 藤田亮策, 1963, 앞의 책, 349쪽.

12) 三池賢一, 1975, 『三國史記』 職官志外位條の解釋, 『北海道駒澤大學研究紀要』 5.

13) 武田幸男, 1975, 『新羅骨品制の再檢討』, 『東洋文化研究所紀要』 67, 東京大學, 181쪽.

14) 三池賢一, 1975, 앞의 논문, 121쪽에서는 출거의 연도로 보면서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오해의 원인은 '於'로 읽어야 할 글자를 '然'으로 읽은 데 있을 것이다(각주 10번 참조).

국원을 채우게 하였다.’라는 국원소경의 예일 것이다.

국원소경의 거주자로서 실제로 경위를 지닌 자가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강수는 그의 아버지가 ‘昔謫 奈麻’이다.¹⁵⁾ ‘원래 任那加良人’이라는 강수가 언제 국원소경에 이주했는지는 매우 불확실한데, 아버지 때까지 왕경에서 살고, 강수가 이주했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강수전에는 20세 이전에 ‘釜谷의 治家の 딸과 야합하였다.’라는 사실이 보이는데, 부곡은 단양, 제천 등에도 있다.¹⁶⁾ 강수의 아버지 석체는 국원소경에 거주하였고 경위 제11등인 나마를 칭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강수는 태종대에 이름을 알렸고, 신문왕대에 세상을 떠났다. 따라서 그의 아버지는 태종대 이전의 사람이다.

또한 668년 문무왕이 고구려전 승리 뒤 개선하여 褥突驛에 다다랐을 때 국원소경의 장관인 仕臣 龍長 大阿滄이 연회를 베풀고 奈麻 緊周의 아들 能曇이 가야의 춤을 바쳤다는 유명한 기사가 있다.¹⁷⁾ 옥돌역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국원소경의 사신이 연회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 부근일 것이다. 그때에 가야의 춤을 바쳤다는 능안은 15세였다고 하는데, 부친과 함께 종군하였다기보다는 그 지방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버지 긴주나마도 국원의 주민이었다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석체나 긴주는 문무왕 14년 이전에 모두 11등의 나마, 즉 경위를 지녔던 것이다.

또한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원소경에 안치된 악사 于勒의 밑에서 552년에 가야금의 음악을 배우라고 명을 받은 注知 階古는 경위 제10등인 大奈麻였으며, 萬德은 경위 제12등인 大舍였다. 그들의 경우, 지방관의 파견과는 다르며, 역시 출거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출거하면서 경위가 삭탈되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예로 생각한다면, 앞의 외위조 기사는 단순하게 읽어서, 그

15) 『三國史記』 強首傳. 李基白 著, 武田幸男 監譯, 1982, 「新羅六頭品の研究」, 『新羅政治社會史研究』, 學生社, 56~57쪽 참조.

16)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4 忠淸道 丹陽郡 孝子 池夢句條에 ‘釜谷’, 同書 同卷 堤川縣 山川條에 ‘釜谷山’이 보인다.

17) 『三國史記』 卷6 文武王 8년 10월 25일조.

때까지는 본래 왕경인이라면 지방에 출거하더라도 왕경인에 준하여 경위가 부여되었는데, 이때부터 순연한 지방인으로 대우가 바뀌고 외위가 부여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三國史記』 편수 시에 외위에 관한 기록이 이것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외위의 사례로는 특별한 사례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기록이 외위조 전문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록만을 통하여 외위를 완결적, 체계적으로 이해하려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해석이 이루어진 것이다.

더구나 이 경우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시기에 외위가 소멸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문무왕 13년(673)에 옛 백제로부터 내투한 관인에 대하여 그 본국에서의 관위에 대응하는 경위·외위를 수여하는 것이 규정되었으며, 아직 경위·외위가 존재하였다. 그런데 신문왕 6년(686) 옛 고구려인에 대한 동일한 조치에서는 경위밖에 보이지 않는다. 경위·외위의 일원화는 이 무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무왕 14년의 조치는 그 전의 짧은 기간의 일이었다. 직접적으로는 전년 옛 백제인에 대한 조치를 계기로 옛 왕경인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원화에 앞서서 일단 엄격하게 왕경인과 지방인의 구별을 재확인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애초에 왕경인을 지방에 이주시킬 때에, 그때까지 당연하게 인정되었던 경위를 지방에 진출하였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지방인과 동일하게 외위만을 허락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주된 왕경인에게는 매우 가혹한 형벌과 동일한 대우일 것이다. 왕경인은 경위를 지니는 것이 특권이었는데 그것이 삭탈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형벌적인 강제이주가 있을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국원의 경우는 ‘귀척 자제와 6부의 호민’이 이주된 것이며, 이들은 보통의 왕경인이 아니라 왕경 안에서도 특권층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를 특권을 삭탈한 강제이주의 사례로 보려면 상응하는 근거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국원소경은 지배자집단으로서의 왕경에 준한

것으로 다시 그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신라에서 소경의 설치는 실은 앞의 5소경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신라에서 최초로 소경이 설치된 것은 지증왕 15년(514)의 일로

봄 정월, 소경을 阿尸村에 설치하였다. 가을 7월 6부와 남쪽 지방의 人戶를 옮겨 그곳을 채우게 하였다.

라고 되어 있다(『三國史記』新羅本紀). 이 아시촌소경의 위치에 대해서는 신라 9주 가운데 상주 聞韶郡의 영현인 安賢縣의 옛 이름이 阿尸兮村이며, 이에 비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¹⁸⁾ 현재의 의성군 안계면에 해당한다.

다만 이 아시촌소경에 대해서는 이 설치기사뿐이어서 그 외에 알 수 있는 바가 없다. 신라가 이 지역을 획득하고 이른 시기에 설치한 것으로 생각된다.¹⁹⁾ 통일 이후 9주가 설치되면서 문소군의 영현으로 되었음을 보면, 당연히 그 전에 소경으로서의 기능은 상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6부와 남쪽 지방의 人戶'를 옮겼음을 통해 국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왕경 6부에 준하는 곳으로 위치 지운 사실을 엿볼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사실은 알 수 없다.

또한 국원소경보다 늦은 선덕왕 8년(639)에는

봄 2월 何瑟羅州를 北小京으로 삼았다. 沙浪 眞珠에게 명하여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

18) 千寬宇, 1976, 「三韓의 國家形成(下)」, 『韓國學報』 3, 146쪽.

19) 필자는 경상북도 전역이 신라의 영토가 되는 시기는 6세기 초라고 생각한다. 신라가 영역국가로 성장하는 시기가 5세기 말 이후이며, 이 소경 설치의 신라의 성장기반이 된 사로국 6촌=6부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왕경인으로서 의식한 하한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된다. 즉 신라는 이 소경 설치에 이르기까지 지방을 획득하고 그에 의해서 6부 지역을 왕경으로 하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田中俊明, 1992b, 「新羅における王京の成立」,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0 참조.

다고 하며, 북소경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북소경은 이후 무열왕 5년(658)이 되어서,

3월, 왕은 하슬라 지역이 말갈에 연결하여, 사람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없으므로 京을 파하고, 州로 삼으며, 도독을 설치하고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

라고 하는 것처럼, 20년 만에 폐지되었다(모두 『三國史記』 新羅本紀). 하슬라는 현재의 강릉시에 해당한다. 그 내실은 자세하지 않으나, 州→小京→州라는 변천을 거듭으며, 통일 전의 주가 전선에 가까운 군사거점의 군단주둔지(州停)이었다는 사실에서 생각한다면,²⁰⁾ 소경은 그것과는 이질적인 성격을 지녔음을 짐작할 수 있다.²¹⁾ 그 점은 국원소경의 성격을 고찰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국원은 남한강에 면하여, 교통의 요충이었다. 본래 고구려의 국원성이었으며, 고구려의 남진정책에서 중요한 거점이었다. 신라가 빼앗은 후에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신라는 신라가 한성을 획득한 후, 한성 지역에는 군단의 주둔기지로서의 州停을 설치하였다.²²⁾ 그러나 국원에는 주정이 설치되지 않고 소경이 설치되었던 것이다. 이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 적어도 국원소경은 군사적 거점으로서의 자리매김하는 것과는 다르며, 문자 그대로 작은 왕경으로서 6부도 배치되고, 경위도 칭할 수 있었던 것처럼 왕경을 지방에서 재현하고자 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20) 末松保和, 1954b, 「新羅幢停考」, 『新羅史の諸問題』 참조.

21) 藤田亮策, 1963, 앞의 책, 353쪽에도 지적되어 있다.

22) 진흥왕 14년(553)에 漢城에 新州를 설치하고 18년에 북한산주를 설치하여 州停을 이동시키고, 또 29년에 남천주를 설치하였다(『三國史記』 新羅本紀). 또한 「眞興王巡狩北漢山碑」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남천주의 설치 시기를 좀 더 앞당겨 볼 가능성이 있다.

V. 國原과 于勒

그렇다면, 신라는 왜 획득한 지 한참 뒤에 국원을 소경으로 삼은 것일까? 이 사실을 명시한 사료는 없지만, 그 단서로서 국원에 거주하였던 사실이 알려져 있는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인 가야금 악사 于勒에 주목해 보고 싶다.

우륵에 대해서는, 겨우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우선 A 『三國史記』 卷4 진흥왕 12년(551)조에

(a) 3월 왕이 순수하여 娘城에 행차하였는데, 우륵과 그 제자인 尼文의 음악에 능통함을 듣고, 특별히 그를 불렀다. 왕이 河臨宮에 머무르며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두 사람은 각각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연주하였다. (b) 그보다 앞서 가야국 嘉悉王은 12弦의 琴을 제작하였는데, 12달의 음률을 본뜬 것이다. 이에 우륵에게 명하여 그 곡을 만들게 하였다. (c) 그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자 악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내투하였다. 그 악기를 가야금이라고 이름 붙였다.

라고 하며, 이어서 진흥왕 13년(552)조에

(d) 왕이 階古·法知·萬德 세 사람에게 명하여 음악에 우륵에게 배우게 하였다. (e) 우륵은 각각 잘 하는 바를 헤아려, 계고에게는 가야금을 가르치고, 법지에게는 노래를 가르치고, 만덕에게 춤을 가르쳤다. (f) 가르침이 이루어지자 왕이 명하여 연주하게 하였다. 말하기를, ‘전에 낭성의 음악과 다름이 없구나.’라고 하였다. 후하게 상을 주었다.

라고 한다. 또한 이에 대응하는 기사가 B 『三國史記』 卷32 樂志 가야금조 所引의 「羅古記」의 기사이다.

(g) 가야국 가실왕이 당의 악기를 보고 (가야금을) 만들었다. 왕이 생각하기를, ‘여러 나라의 방언이 각각 소리를 다르게 하니, 어찌 하나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악사인 省熱縣 사람인 우륵에게 명하여 12곡을 만들게 하였다. (h) 이후 우륵은 그 나라가 장차 어지러워지자, 악기를 가지고 신라의 진흥왕에게 투항하였다. (i) 왕은 그를 받아들이고 국원에 안치하였다. (j) 이에 大奈麻 注知, 階古, 大舍 萬德을 보내어 그 업을 계승하게 하였다. (k) 세 사람은 이미 11곡을 전수받았다. 서로 일러 말하기를, ‘이것은 번잡하고 또한 음란하다. 따라서 우아하고 바르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줄여서 5곡으로 하였다. 우륵은 처음에 그것을 듣고 노하였으나, 그 5종의 음악을 듣고서 눈물을 흘리며 감탄하며 말하기를, ‘즐거운데 넘치지 않고, 애처로우나 슬프지 않다. 바르다고 할 만하구나. 너희는 그것을 왕의 앞에서 연주하라.’라고 하였다. 왕이 그것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諫臣이 의논한 바를 올리니, ‘가야 망국의 음악은 취할 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가야왕이 음란하여 스스로 망한 것이다. 음악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대개 聖人이 음악을 만든 것은 人情에 연유하여 절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라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은 음조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그 곡을 연주하게 하였다. 그로써 大樂을 삼았다.

라고 하였다(abc는 편의상 붙인 것이다).

A의 a~c 중 진흥왕 12년의 일은 a뿐이며, b·c는 그보다 이전의 일이다. 또한 d~f에서 진흥왕 13년의 일은 d와 아마도 e이며, f의 ‘가르침이 이루어진’ 것은 몇 년 정도 흐른 뒤의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순서를 바꿔보면, b→c→a→d→e→f가 된다. 그와 비교하여 B는 g부터 k까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술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우륵은 원래 성열현 사람으로 ‘가야국’의 嘉悉(嘉實)王의 명에 따라 12곡을 만들었다(b·g).
- (2)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자 (제자 尼文과 함께) 악기를 가지고 신라 진흥왕에게 내투하였다(c·h).
- (3) 진흥왕은 우륵(과 제자 尼文)을 국원에 안치시켰다(i).
- (4) 왕이 순수하여 낭성에 이르렀을 때, 국원에 있던 우륵과 제자 이문을 하림궁에 불러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a).
- (5) (그에 감동한) 왕은 注知(法知), 계고, 만덕 세 사람에게 명하여 우륵에게 음악을 배우게 하였다(d·j).
- (6) 우륵은 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계고에게 가야금, 범자에게 노래, 만덕에게 춤을 가르쳤다(e).
- (7) 세 사람은 12곡이 번잡하고 淫微하다고 하여서 줄여서 5곡으로 만들었다(k).
- (8) 우륵은 처음에는 화를 내었는데, 그것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탄하고 왕의 앞에서 연주하는 것을 허락하였다(k).
- (9) 세 사람은 왕의 앞에서 그것을 연주하였다(f·k).
- (10) 왕은 낭성에서 들었던 것과 같다며 크게 기뻐하였다(f).
- (11) 간신이 ‘가야는 망국이며, 그 음악은 취할 바가 아닙니다.’라고 하였으나, 왕은 ‘가야왕은 음란하여 망한 것이며, 음악에는 죄가 없다.’라고 하며 (신하의 말을) 물리치고 그 음악을 연주하게 하고 신라의 大樂으로 삼았다(k).

여기에서 직접 관계되는 것은 (2), (3)이며, 신라에 망명하여 온 우륵 등을 진흥왕이 국원에 안치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일까. (4)가 551년, (5)가 552년의 일이므로, 551년 이전인데, 이것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다.

娘城은 娘臂城이라고도 하며, 청주 부근으로 생각된다.²³⁾ 진흥왕이

23) 娘臂城은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5 忠淸道 淸州牧 建置沿革條에 ‘본래 백제의 上黨縣’이라고 되어 있으며, 註에 ‘혹은 娘臂城이라고 하며, 또는 娘子谷이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청주의 옛 이름 중 하나이

낭성에 이르렀다는 것은 巡狩의 도중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앞에서 서술한 신라가 고구려 영토에 진출한 시기에 해당하며, 당연히 거칠부 등의 선봉부대보다는 늦지만, 왕도 새롭게 획득한 지역에 이미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륵이 망명한 연대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륵의 경력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

우선 우륵의 출신지인 ‘省熱縣’의 경우, ‘縣’ 자는 후대의 추기로 생각된다. 이 ‘성열현’은 신라 9주 중 康州의 江陽郡 宜桑縣의 옛 이름인 ‘辛爾縣’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곳은 현재 의령군 부림면에 해당한다.²⁴⁾ 『日本書紀』에서는 ‘斯二岐國’으로 표기되는 곳이 그곳이다.

우륵에게 명하여 가야금 곡을 만들게 한 ‘가야국’의 嘉悉(嘉實)王은 대가야(고령)의 荷知王에 해당한다. 대가야 국왕인 가실왕이 어떻게 사이기(성열)국인인 우륵에게 가야금의 작곡을 명하였는가라고 하면, 거기에는 나 나름대로의 이해에 기초한, 대가야국을 중심으로 한 몇 개의 가야 諸國의 연합관계가 배경에 있다. 나는 그러한 연합체를 대가야연맹이라고 부르는데, 그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언급해 두고 싶다.²⁵⁾

5세기 후반부터 백제의 영향하에 있었던 대가야는 470년대 가실왕의 시대에 백제가 고구려의 침공에 의해서 피폐해져 역력이 없는 시기에 백제와 떨어져, 백제와 대립적인 정치적 동맹관계를 맺었다. 그것(역자-대가야연맹)은 대가야의 고령부터, 거창, 함양, 남원부터 섬진강 하류의 하동까지 관통하는 루트에 인접한 여러 나라이며, 대가야는 그 루트를 취해서 하구의 하동에서 출항하여 중국 남조의 南齊에 사자를 파견하였다. 479년의 일이었다. 가실왕은 남제로부터 가져온 정

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낭비성에 비정되는 곳은 청주 부근의 몇 개 城址이며, 확정하지 않는다.

24) 末松保和, 1956,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참조.

25) 상세한 내용은 田中俊明, 1992, 『大伽倻聯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참조.

보도 가미하여 독특한 쉼을 만들었다. 당시 중국에서는 12絃의 箏이 쓰이고 있었는데 그 쉼을 배운 것이다. 그것이 가야금이며, 가실왕은 막 성립한 연맹 제국을 통합하기 위하여 그 악기, 그리고 그에 의한 연주를 매개항으로 이용하였다. 즉, 가야금이란 단순한 악기에 그치지 않고 이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여러 나라의 연합을 상징하는, 매우 정치적인 의의를 지닌 것이었다.

우륵의 출신지인 사이기(성열)국은 그 대가야연맹에 속한 나라였다. 연맹의 맹주국인 대가야의 국왕이었던 가실왕은 그러한 관계에서 우륵을 불러낼 수 있었던 것이다. 우륵은 가야금을 위한 12곡을 작곡하였는데, 현재는 곡명이 남아 있을 뿐이다.

우륵은 먼저 (2)에 보이는 것처럼 나라가 혼란스러워져서 신라에 망명한 것이었다. 나라가 멸망하였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러면 혼란스러웠다는 것은 도대체 언제 어떠한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

대체로 대가야연맹은 백제에 대항하는 의도를 가지고 결성된 군사적인 동맹이었는데, 그 때문에 신라 접근책을 취하였다. 그러한 정책은 웅진에서 부흥한 백제가 대가야연맹에 속한 나라들을 침략하려고 하여 한층 더 진전되었다. 백제는 전라도 지역에서 마한의 잔존 세력을 완전히 제압한 후, 그 창끝을 가야로 향하였다. 그 첫걸음이 되었던 것이 장수, 남원 지방에 해당하는 己汶으로의 침공이었다. 그것은 513년부터의 일로, 516년까지 기문을 제압하고, 섬진강을 따라서 帶沙(多沙)에 진출하였다. 이 지역들은 우륵 12곡 중 上奇物·下奇物과 達巳에 해당하며, 당연히 대가야연맹에 속한 세력이었다.

이러한 백제의 침략에 대항하여 대가야는 신라에 혼인동맹을 요청하였다(522년). 그러나 이 혼인동맹은 그다지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신라에게도 침략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529년에 이르러서 동맹은 깨졌다. 그리고 실제로 신라는 낙동강을 넘어서 금관국을 공격하고 그 후 서진하여 喙己呑, 또 卓淳(창원 지방)을 침공하고, 또 대가야까지도 침공하였다.

백제에 대항하여 어느 이상으로 접근한 신라의 침략정책 앞에서 대

가야로서는 큰 기로에 서게 된 것이다. 한편 백제는 안라(함안군 가야읍)의 요청을 받아들여 531년에 안라에 진주하여, 탁순까지 획득한 신라와 가야 지역에서 대치하는 형세가 되었다. 다만 이 남부전선은 그 후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 후 백제는 538년에 사비 천도를 감행한 후, 안라 이서의 이미 획득한 가야 지역(下韓)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려고 郡守·城主를 파견하려고 하였다. 그에 위기감을 가진 안라는 금관국에 대하여 우대책을 취한 신라에 접근하여 갔다.

이러한 안라의 태도에 대하여 백제와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 백제는 앞서 서술한 것처럼 541년에 신라에 먼저 제안하여 동맹을 맺고, 한편으로 가야 여러 나라에 대하여서는 541~544년에 걸쳐서 사비에 여러 나라의 수장(首長)을 소집하여 신라와 통하는 일을 그치게 하려고 하였다. 그것이 이른바 ‘임나부흥회의’이다.²⁶⁾

대가야가 어지러워진 것은 그 무렵부터이다. 이미 자립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게 되었으며, 신라인지 아니면 다시 예전과 같이 백제인지 어느 쪽에 붙어야 할 것인지, 양자택일의 형세가 되었다. 국내는 친신라와 친백제로 양분되었고, 대립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리고 대가야는 안라와는 다르게 백제에 접근하는 정책을 택하였다.

우륵이 망명한 것은 이러한 상황하에서일 것이며, 망명자는 친신라파 무리였다고 생각된다. 망명한 자는 우륵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적어도 제자 이문은 망명하기 전부터 제자였을 것이다. 친신라파는 그 외에도 많았으리라 생각되며, 친신라파 무리가 함께 망명하였을 것이다. 그 시기는 이른바 ‘임나부흥회의’보다도 뒷일일 것으로 보인다. 즉 540년대 후반이다.

이상과 같이 볼 수 있다면, 신라는 망명하여 온 대가야연맹 여러 나라의 친신라파 무리를 받아들여 얼마 안 된 시기에 국원으로 안치하

26) 이러한 점에 대해서 특히 田中俊明, 1992a, 「加耶をめぐる國際環境」, 田村晃一·鈴木靖民 編, 『アジアからみた古代日本(新版 古代の日本 2)』, 角川書店 참조.

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VI. 國原小京 설치 목적

그러면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하여 다시 신라가 국원을 소경으로 삼은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다.

신라의 소경 설치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藤田亮策이 문화적 중심을 지향하였다는 견해를 제기하였으며,²⁷⁾ 또한 林炳泰도 그 점을 인정하면서 신라가 정복한 지역을 주민을 사민하는 대상지로서의 측면을 중시하였다. 그러한 사민을 통하여 구래의 공동체적 유대를 끊으려 하였다는 것이며, 사민의 결과 그 지역과는 이질적인 문화가 이식되었다고 하였다.²⁸⁾ 또 이인철은 국원소경에 대해서 양자의 의견을 절충하여, 새로운 점령지에 신라의 정치·사회·문화를 옮기기 위해서 소경을 설치하고 왕경인을 필두로 한 신라인을 소경에 사민시켰다고 하였다.²⁹⁾ 이들과는 달리 양기석은 역시 국원소경에 대해서 그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副都와 같은 북방 영토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였다고 하였다.³⁰⁾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신라에 망명한 우륵을 국원에 안치시킨 것은 신라가 국원을 소경으로 삼기 전이었다. 따라서 소경의 성립에 앞서서 우륵 일행이 옮겨진 것이며, 직접적으로는 소경 설치 목적을 벗어나 우선 우륵 일행의 국원 안치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7) 藤田亮策, 1963, 앞의 책, 353쪽. 다만 그 경우 주의 장관이 軍權을 지닌 데 비하여 소경의 장관이 文臣이라는 사실을 이유로 들고 있을 뿐으로, 문화적 측면의 구체적인 예증은 林炳泰, 1967, 「新羅小京考」, 『歷史學報』 35·36에 근거해야 할 것이다.

28) 林炳泰, 1967, 앞의 논문, 84~89쪽.

29) 李仁哲, 1989, 「新羅中古期の 地方統治體系」, 『韓國學報』 56, 51쪽.

30) 梁起錫, 1993, 「新羅 五小京의 設置와 西原京」, 『湖西文化研究』 11, 忠北大學校, 12쪽.

그 경우, 바로 의문이 드는 것은 사민을 통하여 구래의 공동체적 유대를 단절시킨다고 하는 의견이다.³¹⁾ 우륵 일행은 대가야로부터의 망명자, 내투자이다. 게다가 망명의 시점에서는 대가야는 아직 멸망하지 않았으며, 스스로의 의지로 구래의 공동체로부터 이탈하여 내투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신라 왕경에 거주하게 하더라도 당연히 공동체적 유대를 단절시키려는 의도는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이다. 새롭게 점령하여 획득한 지역의 경우라면 그곳을 계속 지배해 갈 이상, 그 지역의 유력자를 사민하는 것이 공동체적 유대를 단절시키는 일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륵 일행의 경우는 여기에는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다. 무언가 다른 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비교해 보고 싶은 것은 금관국으로부터 내투한 그 왕족들에 대한 처우이다. 『三國史記』 법흥왕 19년(532)조에는 ‘金官國主 金仇亥, 왕비와 세 아들, 첫째 奴宗, 둘째 武德, 막내 武力과 함께 國帑寶物을 가지고 내항하였다. 왕이 예로써 그를 대우하고 관위 上等을 주었으며, 本國을 식읍으로 삼게 하였다. 아들 무력은 벼슬하여 角干에 이르렀다.’라는 기록이 있다. 진흥왕의 영토 확장책에 공헌한 무력은 그와 같이 각간에 이르렀으며, 「단양적성비」에도 등장하고 沙喙部에 속하였음을 전한다. 즉 무력은 왕경에 거주하고 진골의 반열에 들었던 것이다.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무력뿐인데, 금관국 왕족이 동일하게 우대를 받았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과격적인 대우였다고 생각된다. 신라국가에서 왕경인인가 지방인인가에 따른 차이는 매우 큰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차이였다. 경위를 지니고 골품제에 편입한 왕경인이 전체로서 지배자공동체를 구성하고 외위조차 지니지 못한 골품제와는 무관한 지방인을 지배하는 구조가 존재하였음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신라가 이러한 우대를 했는가라고 하면, 그 후 진행하려고 한 가야 제압을 위해 신라의 처우 방식을 어필하는 것, 즉 신라에 복속되면,

31) 梁起錫, 1993, 앞의 논문에서도 사민책이라는 견해에는 부정적이지만(6쪽), 그 이유는 필자의 견해와는 다르다.

이러한 우대를 받는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단양적성비」의 목적과도 공통된다.

그와 대비되는 경우, 우륵 일행의 국원 안치는 오히려 일반적인 처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왕경에 거주시키는 것은 특별한 경우이며, 왕족이 아닌 우륵 일행에 대해서는 그것은 고려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국원은 새롭게 신라의 영토가 된 지역이었지만, 신라가 한성까지 획득하였으므로, 전선·변경은 아니었다. 망명자를 방위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방패로 삼으려 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망명하여 새롭게 신라인이 된 대가야 사람들을 특별히 냉대할 것은 아니라, 새롭게 신라인이 된 국원 사람들과 동일한 위상으로 통치하려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리매김한 국원을 얼마 뒤에 왕경으로 삼은 것이다.

진흥왕의 주목을 받은 우륵이 계속 국원에 살았음을 명시하는 사료는 없다. 彈琴臺의 전설이 있지만,³²⁾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설일 뿐이다. 그러나 아마도 틀림없이 그대로 계속 살았기 때문에 국원이 樂都가 되었을 것이다. 상술한 것처럼, 문무왕대에 가야의 가무가 국원에 전통이 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곳에 그대로 거주한 우륵과 그 제자들의 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대가야로부터의 망명자를 안치한 국원을 어떻게 왕경에 준한 의미를 지닌 소경으로 삼은 것일까. 그것은 대가야로부터의 망명자가 이미 그곳에 거주한 사실과 무관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오히려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가야로부터의 망명자가 사는 국원을 준왕경화한 사실은 저들에 대한 우대조치로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금관국 왕족에 대한 처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조금 뒤늦게 다시 우대 조치를 취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시점은 또한 대가야국을 비롯하

3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14 忠清道 忠州牧 古跡條에 ‘彈琴臺’가 보이며, 註에 ‘우륵이 가야금을 연주한 곳, 후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그 곳을 탄금대라고 이름 붙였다.’라고 한다. 충주시 교외의 탄금대에는 지금도 우륵을 현창하는 비와 시설이 있다.

여 남아 있던 연맹 여러 나라가 한창 신라와 대항하던 중이었으며, 小京化의 배경에 금관국 왕족에 대한 우대와 동일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고지로부터 탈출하여 신라에 망명해 온 우륵 일행에 대하여 일단은 일반적인 처우로서 때마침 획득한 국원에 안치시켰던 것인데, 그 후에 다시 우대 조치를 취하여 국원 지역을 소경으로 삼고, 왕경인에 준한 대우를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中原京 沙梁人’이라는 강수는 ‘任那加良’ 출신이었다. 임나가량이란 任那加羅로, 금관국을 가리킨다.³³⁾ 그 집안이 언제부터 국원소경에 살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의 아버지도 경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러한 우대 조치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가야문화를 이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진흥왕 자신은 낭성에 들르기 전까지 국원에 음악에 뛰어난 우륵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흥왕이 그를 알게 된 이후 이곳에서 악(琴·歌·舞)을 전수시킨 것이며, 국원이 樂都가 되는 데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신라가 실제로 대가야를 병합하자 가야악도 그 일을 상징하는 형식으로 신라의 大樂의 하나로 위치 지워지게 되고, 비중이 한층 더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전통의 일단이 문무왕대의 가야무 봉정에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강수의 경우도 문장가로서 알려져 있는데, 그 때문에 국원에 살게 하였을 리는 없다.

국원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서도 언급한 대로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소경이 된 이유로는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VII. 5小京 성립의 배경과 의의

이상, 5소경의 중심이 된 국원소경의 성립과 그 배경에 대해서 고찰

33) 田中俊明, 1992, 앞의 책, 31~37쪽 참조.

하였다. 국원의 소경화는 왕경에 준하는 특수지역을 지향한 것이며, 예전에 주장된 사민정책과는 무관하며, 이미 안치된 대가야로부터의 망명자에 대한 우대책과 관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의 일원에 지나지 않았던 우륵 일행이 대가야연맹을 상징하는 악사였다는 사실이 그 후 국원소경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신라 왕은 당초부터 그 사실을 인식하고 국원을 악도로서 위치 지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결과였다. 이렇게 국원의 소경화, 그리고 그 특질형성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의미에서 대가야로부터의 망명자의 관여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나머지 네 소경은 모두 통일 이후에 설치된 것이며, 그 배경이 국원성의 소경화와 완전히 다른 쉽게 예상되는 바이다. 게다가 소경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王京 그 자체의 변질 문제도 고려해 둘 필요가 있다.

국원소경 시대의 왕경은 필자가 6부 왕경이라고 칭하는 것이며, 왕경인=6부인이 지배자공동체를 구성하고 그들만이 경위를 지니고, 외위조차 갖지 못한 지방인에 대하여 전체로서 군림하는 시대의 왕경이었다. 국원소경은 보아온 것처럼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의 왕경을 지방에 재현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신라 왕경은 통일을 달성한 뒤 크게 변모하였다. 그것은 그 전까지의 6부 지역의 일부를 구획하여 條坊制를 시행한 왕경이었다. 그전까지의 왕경이 6부인을 위한 왕경이었다고 한다면, 이 조방제 왕경은 왕을 위한 왕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³⁴⁾

그러한 조방제 왕경의 형성기가 바로 5소경 성립기에 해당하며, 따라서 기본이 된 왕경 그 자체가 점차 변질되어 가는 시기였다. 당연히 소경의 의미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왕의 왕경에 알맞은, 새로운 소경이 모색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남원소경은 왕경을 모방하여 조방제가 시행되었다. 다른 소경에는 그 흔적이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州의 중심에서도 尙州의 경우에 조

34) 田中俊明, 1992b, 앞의 논문 참조.

방제가 실시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³⁵⁾ 조방제가 소경으로서의 필요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나, 왕경을 의식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원소경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喙部’가 있었다. 왕경에서의 6부의 의의는 이미 달라졌으나, 왕경과 무관할 리 없으며, 서원소경의 喙部도 역시 왕경을 의식한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5소경의 그 이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사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³⁶⁾ 겨우 남원소경에 玄琴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전승이 있다.³⁷⁾

신라인 사찬 恭永의 아들 玉寶高가 地理山 雲上院에 들어가 琴을 공부하기를 50년, 스스로 새로운 가락 30곡을 지어 이를 續命得에게 전하였다. 속명득은 이를 貴金 先生에게 전하였다. 선생도 역시 지리산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신라왕이 琴의 道가 단절될까 두려워, 伊浪 允興에게 말하였다. 방편으로 그音を 전수받으라고 하였다. 마침내 南原의 公事를 맡겼다. 윤흥이 관부에 도착하여 총명한 소년 두 사람, 安長과 淸長을 선발하여 산중에 가서 배움을 전수받게 하였다. 선생이 이들을 가르쳤다. 그러나 그 은미한 부분은 전수해주지 않았다. 윤흥과 그 처가 함께 나아가 말하기를, ‘우리 왕이 나를 남원으로 보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생의 재주를 잊고자 함이다. 지금 3년이 되었다. 선생이 숨기는 바가 있어 전수해 주지 않았다. 나는 명령을 완수할 수가 없다.’라고 하였

35) 朴泰祐, 1987, 「統一新羅時代の 地方都市에 대한 研究」, 『百濟研究』 18, 忠南大學校.

36) 正倉院에 소장된 이른바 「신라촌락문서」에는 서원소경에 속한 촌의 實勢가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호암미술관에 소장된 『華嚴經寫經』(755)에는 大京(신라왕경)의 기술자와 함께 南原京·武珍伊州 외의 經筆師의 이름이 보이는데, 소경이 다른 곳과 다른 특질에 대해서 서술하는 것은 아니다.

37) 『三國史記』 卷32 樂志 玄琴條. 전설의 연대에 대해서는 사료에 보이는 允興이 『三國史記』 권11 景文王 6년(866) 겨울 10월조에 모반을 꾀하였다가 발각되어 죽임을 당한 사실이 전하므로, 9세기 후반의 일로 생각된다.

다. 윤홍은 술을 받들고 그의 처는 잔을 잡고 무릎걸음으로 가서 예의를 지극하게 하고, 정성을 다하였다. 그런 연후에야 그 감추었던 飄風 등 세 곡을 전수해 주었다. 安長은 그의 아들 克相과 克宗에게 전하였다. 극중은 일곱 곡을 지었다. 극중 이후에 금으로써 스스로 업을 삼은 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고구려계의 금인 玄琴의 명수 옥보고와 귀금 선생이 남원에 가까운 地理山(智異山)에 은거하였기 때문에 신라 왕이 琴의 道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윤홍을 남원에 파견하여 祕傳을 전수받게 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남원소경의 문화적 특질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지리산에 가까웠기 때문에 남원이 관계된 것에 불과하다.³⁸⁾

그렇다면 조방제 왕경 시대의 새로운 소경으로서 도대체 무엇이 요구되었던 것일까. 왕경의 편재성을 보완한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하고, 그 때문에 설치된 소경에 부여된 역할의 문제이다. 그리고 다시 국원소경이 소경의 중심이라고 할 중원소경으로 명명되고, 그 동서남북에 배치된 형태로 5소경이 성립하였다는 사실의 의미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국원이 중심이 된 것은 단순히 위치가 예정된 5소경의 중앙에 있었다는 이유에서만은 아니다. 동서남북 전부에 붙여진 ‘原’자는 당연하지만 그때까지의 ‘국원’을 의식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³⁹⁾ 즉 ‘중원’ 두 글자가 중원소경이 중심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중의 의미로 보여주는 것이다.

5소경은 국원소경 백여 년의 전통, 실적 위에 서서 그것을 바로 중

38) 林炳泰, 1967, 앞의 논문에서는 이 전승을 원래 고구려계의 예술이 남원소경에까지 유행하였다고 보고, 일찍이 이곳에 고구려인을 사민한 것이 아닐까 상상하였다(90~91쪽).

39) 梁起錫, 1993, 앞의 논문은 ‘平原’의 의미로 파악하였는데(24쪽), ‘國原’과의 관계는 명백하다. 그 전신인 고구려의 국원성의 字義에 대해서는 ‘平原’의 의미도 포함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李道學, 1988, 앞의 논문 참조.

심으로 하여 설치된 것이었다. 그러면 그 국원소경의 전통이란 무엇일
 까? 국원소경이 지닌 의의는 이미 설치 당초의 의의와는 달라졌으며,
 한 가지를 든다면, 결과로서의 문화성뿐일 것이다. 그것이 국원소경이
 도달한 의의였다. 통일 후에 성립한 5소경은 왕을 위한 조방제 왕경이
 지닌 다면적인 隔絶性 중에서, 한 가지 요소만이 부여된 출장소적 존
 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조방제 왕경은 唐制의 영향을 받았다고 평할 수 있는데, 五
 京制에 대해서는 어떨까. 실은 당에서도 오경제가 시행된 시기가 있었
 다. 그러나 그것은 신라보다도 늦은 8세기 후반의 일이며, 그 중경은
 바로 당의 수도인 장안이었으며,⁴⁰⁾ 이념적으로도 매우 달랐다고 할 수
 있다. 당 이전에는 副都·陪都와 같은 것이 존재한 경우는 적지 않으나,
 5경의 원형이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⁴¹⁾

그렇다면 가까운 백제·고구려에서는 어떠할까. 고구려에서는 3경으
 로 불리는 것이 있었다. 『隋書』 高句麗傳에 보이는 표현이며, 당시 왕
 경(평양성, 현재 북한 평양)과 예전의 수도인 국내성(중국 길림성 집
 안)과 서울의 한성을 잃은 뒤, 고구려가 독자적으로 설치한 한성(황해
 남도 신원군)이 바로 3경이다. 또한 백제에서는 五方制가 있었다. 이는
 전국을 5개로 나눈 지방통치조직인데, 그 각각의 거점을 또 5방으로
 부른 것으로, 『周書』 百濟傳에 의하면 北方 熊津城(공주), 西方 刀先城
 (미상), 南方 久知下城(구례?), 中方 古沙城(정읍군 고부면), 東方 得安
 城(논산군 은진면)이 바로 5방이다. 중심이 왕도(사비성)가 아니라는
 점이 신라와 5경과 공통되어 흥미로우나, 그 총체적인 형태는 신라의
 5경과는 매우 다르다.

40) 朱士光·葉驍軍, 1987, 「試論我國歷史上陪都制的形成与作用」, 『中國古
 都研究』 3,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64쪽에 따르면, 757년에 5경이 설치
 되고 中京 장안 외에, 東京이 洛陽, 北京이 太原, 西京이 鳳翔, 南京이 成
 都였다.

41) 신라와 남북으로 대치한 발해에도 8세기 중반에 5경제가 성립하였는데,
 그에 대해서는 唐制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鳥山喜一, 1969, 『渤海史上
 の諸問題』, 風間書房 참조.

왕경이 초연하게 존재하고 그것과는 전혀 격을 달리 한 5소경이 그것만으로 완결된 형태로 배치된 듯한 이 신라의 5소경제는 완전히 독자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新羅, 小京, 國原, 于勒, 國原小京

[투고일: 2018.10.14, 게재확정일: 2018.11.30.]

【參考文獻】

- 朴泰祐, 1987, 「統一新羅時代の 地方都市에 대한 研究」, 『百濟研究』 18, 忠南大學校.
- 梁起錫, 1993, 「新羅 五小京의 設置와 西原京」, 『湖西文化研究』 11.
- 李道學, 1988, 「永樂6年 廣開土王의 南征과 國原城」, 『孫寶基博士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知識産業社.
- 李仁哲, 1989, 「新羅中古期の 地方統治體系」, 『韓國學報』 56.
- 林炳泰, 1967, 「新羅小京考」, 『歷史學報』 35·36.
- 千寬宇, 1976, 「三韓의 國家形成(下)」, 『韓國學報』 3.
- 藤田亮策, 1963, 「新羅九州五京攷」, 『朝鮮學論考』, 藤田先生記念事業會.
- 末松保和, 1954a, 「新羅建國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 末松保和, 1954b, 「新羅幢停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 末松保和, 1956,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 武田幸男, 1975, 「新羅骨品制の再檢討」, 『東洋文化研究所紀要』 67, 東京大學.
- 武田幸男, 1979, 「眞興王代における新羅の赤城經營」, 『朝鮮學報』 93.
- 三池賢一, 1975, 「『三國史記』 職官志外位條の解釋」, 『北海道駒澤大學研究紀要』 5.
- 李基白 著, 武田幸男 監譯, 1982, 「新羅六頭品の研究」, 『新羅政治社會史研究』, 學生社.
- 田中俊明, 1992a, 「加耶をめぐる國際環境」, 田村晃一・鈴木靖民 編, 『アジアからみた古代日本(新版 古代の日本 2)』, 角川書店.
- 田中俊明, 1992b, 「新羅における王京の成立」,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0.
- 田中俊明, 1992, 『大伽倻聯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 鳥山喜一, 1969, 『渤海史上の諸問題』, 風間書房.
- 朱士光・葉驍軍, 1987, 「試論我國歷史上陪都制的形成与作用」, 『中國古都研究』 3,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참고문헌】

- 『三國史記』,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總督府 編, 1919, 『朝鮮金石總覽 上』, 朝鮮總督府.
忠北大學校博物館 編, 1982, 『上黨山城地表調査報告書』.
權相老 編著, 1994, 「智異山實相寺重興事蹟詩(또는 誌) 序」, 『韓國寺刹事典 (上)』, 退耕堂權相老博士全書刊行委員會.
- 林炳泰, 1967, 「新羅小京考」, 『歷史學報』 35 · 36.
千寬宇, 1976, 「三韓의 國家形成 (下)」, 『韓國學報』 3.
朴泰祐, 1987, 「統一新羅時代의 地方都市에 대한 研究」, 『百濟研究』 18, 忠南大學校.
李道學, 1988, 「永樂6年 廣開土王之 南征과 國原城」, 『孫寶基博士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知識產業社.
李仁哲, 1989, 「新羅中古期の 地方統治體系」, 『韓國學報』 56.
梁起錫, 1993, 「新羅 五小京의 設置와 西原京」, 『湖西文化研究』 11.
- 末松保和, 1954, 「新羅建國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末松保和, 1954, 「新羅幢停考」,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末松保和, 1956,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
藤田亮策, 1963, 「新羅九州五京攷」, 『朝鮮學論考』, 藤田先生記念事業會.
烏山喜一, 1969, 『渤海史上の諸問題』, 風間書房.
三池賢一, 1975, 「『三國史記』 職官志外位條の解釋」, 『北海道駒澤大學研究紀要』 5.
武田幸男, 1975, 「新羅骨品制の再檢討」, 『東洋文化研究所紀要』 67, 東京大學.
武田幸男, 1979, 「眞興王代における新羅の赤城經營」, 『朝鮮學報』 93.
李基白 著, 武田幸男 監譯, 1982, 「新羅六頭品の研究」, 『新羅政治社會史研究』, 學生社.

田中俊明, 1992, 「加耶をめぐる國際環境」, 田村晃一・鈴木靖民 編, 『アジアからみた古代日本(新版 古代の日本 2)』, 角川書店.

田中俊明, 1992, 「新羅における王京の成立」, 『朝鮮史研究會論文集』 30.

田中俊明, 1992, 『大伽倻聯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朱士光・葉驍軍, 1987, 「試論我國歷史上陪都制的形成与作用」, 『中國古都研究』 3, 杭州: 浙江人民出版社.